

마태복음 7장 개관도표
주제 : 그 날, 그 때를 예비하라

비판과 분별	<p>1-6</p> <p>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1)</p> <p>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6)</p>	<p>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2)</p>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p>7-12</p> <p>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p> <p>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p>	<p>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7)</p> <p>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12)</p>
두 문과 두 나무와 두 건축자	<p>13-29</p> <p>좁은 문으로 들어가라</p> <p>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p> <p>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p> <p>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p> <p>그 날에</p> <p>↓</p> <p>그 때에</p>	<p>별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13)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14)</p> <p>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15)</p> <p>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21)</p> <p>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22)</p> <p>내가 저들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23)</p> <p>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24).</p> <p>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26)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27)</p>

마태복음 7장, 그 날, 그 때를 예비하라

요절 :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산상설교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본문으로 직행하기에 앞서서 이제까지의 문맥을 살펴 보아야 한다는 것은 유익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을 봄으로 결길로 빠지게 되는 잘못을 방지하는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5:1)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향하여 하신 첫 말씀이 8복의 사람입니다. 이는 “무엇을” 행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고, 애통하고, 온유해진 사람, 그리하여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복 받을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천국(天國)이 저희 것임이요”(5:3, 10) 하십니다. 산상설교의 주제도, 마태복음의 주제도, “천국”에 있음을 놓치지말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천국”으로 시작하신 설교가 마지막에 이르러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7:21) 하고 끝마치시는 것이 산상설교입니다.

그렇다면 산상설교가 우리에게 제기(提起)하고 있는 문제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요, 마태복음은 이에 대한 “해답”인 것입니다. 이 큰 맥을 망각하기 때문에 산상설교에 대한 해석이 뒤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5:17)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살인, 간음, 맹세” 등에 관해서 바른 해석을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지도자들이 율법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5장의 대의입니다.

6장에서 “구제, 기도, 금식” 등에 관해서 바로잡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신전신앙(神前信仰)에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6:1, 2, 5, 16) 하는 인본주의(人本主義)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6:24) 하신 “두 주인”(主人)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른 보면 두 주인이 “하나님과 재물”인 것 같으나 그것은 표면만 본 것이요 다른 한 주인은 이 세상 임금(요 12:31)인 사탄이요, 달리 표현하면 “자기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 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 자신의 영광을 위하는 “자기중심”(自己中心)적인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6장의 대의요, 그러므로 6장의 핵심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가 됩니다.

그런 후에 본문인 7장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7장을 푸는 키워드(Key Word)는 “그 날에(22), 그 때에”(23) 라는 작은 낱말입니다. “그 날, 그 때”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결산하시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 날에”, “비판(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첫째 단원) 하십니다. “그 날”을 예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구하고, 찾을 것인가(둘째 단원),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22) 했노라고 말할 것이지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23) 하십니다. 이처럼 “두 문, 두 나무, 두 건축자”(셋째 단원) 중에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하나는 영생으로, 하나는 멸망으로 갈라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느 편을 택하겠느냐” 하고 물으시면서, “그 날, 그 때를 예비하라”는 것이 마지막 장의 주제입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1-6) 비판과 분별

둘째 단원(7-12)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셋째 단원(13-29) 두 문, 두 나무, 두 건축자

첫째 단원(1-6) 비판과 분별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1).

①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2상) 합니다. 누구에게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가? 1차 적으로는 사람에게 받게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비판”이란 메아리의 법칙에 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비판”한 그대로 되돌아오고, 내가 “헤아린” 그대로 나도 헤아림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②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 날, 그 때”에 재판장 되시는 주님께 내가 “비판한 대로, 헤아린 대로”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공홀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홀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홀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약 2:13).

③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3) 하십니다. 누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가? 이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1차 적으로는 당시의 종교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점이 “외식하는 자여”(5상) 하시는 말씀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말씀은 일반 성도들보다는 목회자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외식”이라는 문제가 일반 성도들보다는 지도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점이,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5하)는 말씀에 나타납니다.

④ “비판”(批判)이 “외식”(外飾)과 결부되어 있음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외식의 특성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외식”이라는 병을 심각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외식”을 하게 되면 “회칠한 무덤”(23:27)과 같아서 당장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은 점점 깊어지고 “그 날, 그 때에”는 별거벗은 것같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식의 치명적인 해독은 환자가 의사를 너무 늦게 찾은 것처럼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⑤ 그렇다면 어째서 외식하게 되는가? 첫째는, ㉠ 8복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심령의 가난함”도, “애통”도, “의에 주리고 목마름”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모르게 되는가?

㉡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롬 3:21) 하신 율법을 곡해(曲解)함으로, 자신의 해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눅 18:21).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빌 3:6) 하고 자부한다면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끈고한 사람이로다, 죄인 중에 내가 피수니라” 하고 애통하며 깨어진 자에게는, “외식”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외식과 비판

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6상) 하십니다. 주

님이 말씀하시는 “개와 돼지”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는 짐승이 아니라 사람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개나 돼지”로 비유해서 말한다는 것은 “비판하는 것”이 아닌가? “비판하지 말라” 하신 주님은 그 자리에서 “비판”을 하고 있지 아니한가? 여기에 균형(均衡)과 조화(調和)가 있습니다.

② “비판하지 말라” 하신 말씀만을 보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하고, 빼 없는 해파리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만 하라, 은혜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교회 내에서도 바른 말을 하면 비판적인 사람 취급을 당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비판하지 말라” 하신 것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입니다. 이는 “아디아포라”에 속하는, 즉 하찮은 윤리적인 문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③ 그런데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 하신 것은 “거룩한 것, 진주”(6)입니다. 이는 사활이 걸려 있는 교리적인 문제, 즉 복음진리를 의미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밭고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6하) 하시는 것을 보면 개와 돼지에 비유하신 사람이 권세가 있는 지도계급임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참고 양보할 수가 있어도 이 진리만은 타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바울에게서 보는 바입니다. 기둥 같은 베드로를 대면하여 책망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지어다” 하는 극단적인 말까지 합니다. 이는 사소한 문제,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 복음을 보수하는 여부가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④ 그러므로 “비판과, 분별”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비판이란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그리하여 기도하러 올라가서는 자기 자랑만을 늘어놓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눅 18:9-12)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분별”은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分辨)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딤후 2:15) 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둘째 단원(7-12)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7).

① 주님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십니다. 오늘날 한국 강단에서는 이 말씀을 문맥에서 뽑아내어 거두절미하고 무엇이냐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실 때까지 구하라,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고 강조합니다. 이 말을 믿고 성도들은 사업 잘되기를 구하고, 병 낫기를 구하고, 소원성취하기를 때를 쓰듯 구하는 것입니다. 과연 기도란 그런 것일까요? 주님은 본문을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러한 해석은 주님의 의도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인본주의적인 곡해임을 이내 알게 됩니다.

② 주님께서서는 바로 앞장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6:31)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가리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이런 것들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단 말입니까? 주님을 전망증이 심한 분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③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본문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결부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하라”는 주제가 “기도”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만일 끈질긴 기도, 불퇴진(不退陣)의 기도를 말씀하심이라면,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하신 6:5절 부분에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신 주제가 무엇인가? 이 말씀이 놓여있는 위치가 어디인가를 주목해야만 합니다.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에 이르러 하신 말씀입니다. 형제가 지금까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설교를 듣고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야 함을 인정하면서도 좌절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령의 가난함”, 즉 자신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점을 시편에서는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하므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시 119:131) 하고 말씀합니다.

④ 이를 아시기에 주님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고 답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 해답이 무엇인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병행구절에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눅 11:13) 하신 “성령”입니다.

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은 주님이 불쑥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 존전에서 추방당한 인류에게 향하신 신구약성경의 일관된 촉구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놓여 있는 그들이 무엇을 구하여야만 하겠습니까? 무엇을 찾아야만 하겠습니까? 생각해보십시오.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출 2:23),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단 9:19)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입니까?

⑥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신 4:29).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나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지가 이제 오래였으니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으매 저가 그들의 만나바 되셨나니”(대하 15:2-4), 아시겠습니까? 주님은 이 본질적인 문제를 구하라, 찾으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구할 것인가?

① 이 주제를 구속사라는 맥락에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우선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만일 언약을 세워주심이 없다면 기도만이 아니라 믿음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립이 될 수가 없는 절망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반응이라면, “기도”란 언약을 붙잡고 이루어주시기를 구함입니다. 애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을 붙잡고 부르짖었습니다. 다니엘도 예레미야로 하신 약속을 붙잡고 부르짖었습니다. 오순절의 120명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지라”(겔 36:36-37).

② 구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이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가 구속사역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승천하시게 되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8복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최상의 선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③ 구하여도 받지 못한 시대, 이것이 구약시대였습니다. 또한 “두드려도” 열리지 않던 시대가 구약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많은 제물을 드렸어도 굳게 닫혀있는 휘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구약시대)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히 9:8). 이를 열어주시려 오신 분이기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④ 이제 분명합니까? 우리는 이미 구한 바를 받았으며 찾던 분을 만났으며, 두드리던 문이 열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에 주리고 목마름”은 한 번 배부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은 계속적으로 가난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헐떡임”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⑤ 균형과 조화를 위해서 부언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함은, 병 낫기를 기도해서는 안 된다, 축복 기도하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 4:6) 말씀합니다. 문제는, ㉠ 산상설교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신 말씀을 곡해하여, ㉡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는 식으로 덮어놓고 대입(代入)하려는 잘못을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오용(誤用)하게 되면 주님께서 의도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중심의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 자기중심적인 기복신앙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⑤ 형제여,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을 들으면 상기하게 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불지 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계 3:20) 하신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리고 더 많이, 더 오래도록 형제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음을 형제는 잊지 않고 있습니까? 주님께서서는 무엇을 원하셔서, 무엇을 주시려고 형제의 마음 문을 두드리신 것일까요?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형제에게로 들어가 형제로 더불어 먹고, 형제는 주님과 더불어 먹게 하시려는 사랑의 교제를 원하셔서입니다. 형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교제를 사모하여 얼마나 문을 두드려 보셨습니까? 이처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심은 신약성경에만 계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 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아 5:2).

이러한 주님을 밖에 세워둔 채 축복만 구하지 않았습니까? 은사만 구하지 않았습니까? 기사이적만 구하지 않았습니까?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12)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문맥적(文脈的)으로 보면 지금까지 하신 말씀의 결론(結論)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용(內容)이 이제까지 하신 말씀과 잘 연결되지 않는 듯이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고심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表面)만 보고, 이면(裏面)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신 말씀의 결론이 될 수가 있는가?

② 12절의 핵심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라”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20:28) 하신 말씀과 상통합니다. 즉 주님은 “대접”하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인류역사상 남을 최고로 대접한 분이 누구일까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요 15:13),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들을 이처럼 대접해주셨습니다. 이런 망극한 대접을 받은 자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대접하신 것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 하십니다.

③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십니다. 즉 구약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한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22:39) 하신 말씀입니다. 이를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구약성경의 완성)이니라”(롬 13:10)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④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가”, 12절의 표현대로 하면 “대접”을 받고 싶어합니다. 주님은 아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한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런 사랑과 대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구약성경) 뿐만이 아니라 신약성경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산상설교의 주제는 12절에서 결론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하(13-29)의 말씀은 설교를 마치시기 전에 다시 한번 당부를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까지의 설교를 이해했느냐? 그렇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과 같다”.

마태복음 7:13-29절

셋째 단원(13-29) 두 문, 두 나무, 두 건축자

두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13).

① 본 단원은 산상설교의 결론부분입니다. 여기에는 "두 문, 두 나무, 두 건축자"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5:17) 하고 시작된 산상설교의 본론(本論)은 12절에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고 결론에 이른 셈입니다. 이런 문맥으로 볼 때 본 단원은 산상설교의 적용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문, 두 나무, 두 건축자"의 대조(對照)는 불가피 하게 어느 쪽이 참인가 하는 분별(分別)과,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본 단원의 핵심은,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어떤 나무라야, 어떤 건축자"라야 천국(21)에 들어갈 자인가 하는 "천국"(天國)에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② 먼저 "두 문" 비유를 말씀합니다. "두 문" 중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는가? 회남자의 글에는 "양자는 갈래 길을 만나자 울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형제 앞에 두 문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를 확연히 분별할 수 없다면 어찌 울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노라면 두 문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때 너희는 내가 어느 문으로 들어갔는지 당황해 할 것이다.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오너라"(13상).

③ 문이 크고,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가고 있는 쪽으로는 가지 말고, 찾는 이가 적은 쪽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구약의 역사가 이를 증명(證明)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수심판 당시는 "부지기수(不知其數) 대 8"이었고, 정탐꾼들은 "10 대 2"였으며, 선지서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 대 한 사람"(또는 불과 몇 사람)의 참 선지자로 나뉘었습니다. 참 선지자들의 외침은 한결같았습니다. 평탄한 길을 선택한 자들을 향해서 "돌아 오라"는 것입니다. 다른 문으로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잘못 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돌아오지 않고 점점 더 멀리 멀리, 돌아오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지점까지 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 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호 11:7) 하십니다.

④ 그렇다면 어찌하여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은 것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 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6장에서 말씀하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중심과,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추구하는 자기중심"의 대조인 것입니다. 인본주의 신앙노선은 문도 크고 길도 넓고 찾는 사람도 많아 환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눅 6:26). 형제도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큰 문, 넓은 길, 들어가는 자가 많은" 그 길로 그대로 가지렵니까?

두 나무

① 두 번째는, "두 나무" 비유입니다. "두 나무"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15상) 하십니다. 이런 경계는 종말론적인 계시를 말씀하는 24장에서 거듭 거듭 경고하십니다. ㉡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하고 묻는 제자들에게 첫 말씀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24:3-5) 하고 경계하십니다. 11-13절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경고하십니다. 24-25절에서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하십니다.

② 서신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선생)를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한 싸움은, 선교를 의미하기보다는 복음을 보수하기 위한 거짓 교사들과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유다서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유 1:3-4) 합니다.

③ 계시록에는 편의상 말하는 사탄의 삼두체제(三頭體制)가 있는데 그것은 "용, 짐승, 거짓 선지자"입니다. 짐승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인데, 말 그대로 외부로부터 교회를 물어뜯지(박해)만, 거짓 선지자는 내부에 침투하여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계 13:13)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부적인 박해보다는 내부적인 미혹이 교회에는 더욱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난히 기사이적을 선호하는 한국 성도들 중에 분별력을 행사하여 미혹을 당하지 않을 성도가 얼마나 될 것인가 염려스럽습니다.

④ 여기 두 가지 물음이 제기 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는가 하는 문제와, 참과 거짓을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먼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시금석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15하) 하십니다.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분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에는 윤리적인 면과 진리적인 면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주님이 말씀하신, ㉠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윤리적인 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 ㉡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23:13) 하고 책망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 면에서 잘못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치명적인 해독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위선자"는 자신만 못 들어갈 수가 있으나, 거짓 선지자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백성들은 저들의 "위선(僞善)도, 비진리(非眞理)도" 분별해 내지를 못하다가 함께 망하고 만 것입니다.

무엇으로 분별하는가?

① 이점을 앞에서 말씀한 "문의 비유"와 결부시켜보면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거짓 선지자란 "큰 문" 앞에 서서, "이 큰문으로 들어가셔서, 넓은 길로 평안히 가십시오. 이 길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하고 유혹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했

습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죽을병이 들었는데도) 평강하다 평강하다"(렘 8:11) 하고 듣기에 좋은 말만했고, 무지한 백성들은 그 거짓말에 아멘, 아멘 하다가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②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게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21) 하십니다. "뜻대로 행하지 않음"을, 23절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22) 하십니다. 그들은 "선지자 노릇, 귀신을 쫓아냄, 많은 권능"을,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하고 세 번이나 강조합니다. 이들을 거짓 선지자로 의심할 자가 그 누구이겠습니까? 성도들입니까? 본인 자신입니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그들에게 "당신 조심하십시오" 하고 말했다가는 그 사람을 거짓 선지자로 몰아 부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잘못이 어디에 있는가?

③ 한마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6장 말씀대로 하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즉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했다는 것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고전 3:12)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때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23)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이 곧 "불법"이라는 말씀입니다.

④ 주님은 24:11-12절에서도 "거짓 선지자와 불법"을 연관시켜서,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고 경고하십니다. 바울은 이를 받아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딤후 2:5) 하고 경계합니다. 그렇다면 "불법"이 무엇인가? 이를 윤리로만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불법"인 것입니다.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해도 만일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도,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 손으로 여호와와 뜻을 성취하리로다"(사 53:10)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거짓 선지자로 전락하게 되는가

① 이는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성장 일변도로 몰두하고 있는 현대교회에 경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앞에서 제기했던 두 번째 물음인,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는가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선지학교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2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로 전락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갈 1:8) 하고 "우리", 즉 자신을 제일 먼저 꼽고 있습니다. 바울이라 해도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갈 1:10), 즉 거짓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신 데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하겠습니까. 첫째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

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도는 "너희는 거짓 선지자로 전락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뜻이 있다 하겠습니까. 이는 선생들에게 하시는 경고입니다.

② 그렇다면 "불법을 행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산상설교의 주제가, ㉠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21) 하신 "천국"에 있음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이 범하게 되는 많은 불법이 있다하여도 치명적(致命的)인 불법은,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눅 11:52) 하신 성경해석에 있다 하겠습니까. 선지자란 "지식의 열쇠" 즉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쳐야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어찌하여 언약백성들이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배척했는가? 지도자들이 성경을 곡해했기 때문입니다.

③ 사도 바울은,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고후 2:17) 합니다. 바울 당시에 벌써 수다한 사람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였다면 2천년이 지난 현대교회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테에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分辨)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군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딤후 2:15)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분이 무엇인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 하는가 여부에 달렸다는 말씀입니다.

두 건축자

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24) 하십니다. "두 나무" 비유에서, "두 건축자"의 비유로 진전해나가십니다. 주님의 세 비유에서 유념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문이 많고, 길도 여러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두 문, 두 길, 두 건축자"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이 둘 중에 어느 한 쪽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두 건축자의 대조(對照)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대조로 전개됩니다. ㉠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는 누구인가 하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이고", ㉡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고 하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26)라는 것입니다.

② 그런데 건축자가 기만을 당하게 되는 것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기"(25) 전에는 둘 다 안전한 듯이 보인다는데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고전 3:13-15) 합니다.

③ 산상설교의 결론은 "그 날"(22), 즉 최후심판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는" 것은 역사적인 종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종말의 날도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는 날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광야생활에서는 비 오고 바람 부는 시련은 자주 있게 마련입니다. 이 시련이 그의 신앙이 어떤 주초 위에 세워졌는가를 점검하는 시금석입니다. 만일 시련 앞에서 무너짐이 심하다면 당신이 어리석은 건축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때가 늦기 전에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하면서 황급히 주초를 다시 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점을 시편기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시 119:67) 했습니다.

④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그 주초를 반석 놓은 것이란 말씀인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

는 자는" 하십니다. 이에 대한 좋은 해설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같이 네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좇음이라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겔 33:31-33). 설교를 음악을 감상하듯 고개를 끄덕이면서 감명 깊게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뿐입니다. 음악감상에는 결단이 필요치가 않은 것입니다.

⑤ 이제 산상설교 강해를 마쳐야만 하겠습니다. 꼭 한가지 점검할 일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행하는 자는" 하셨는데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행해야 할 바를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의 답변은 산상설교를 바로 이해했는가 여부를 말해줍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눅 18:9-14)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더 많은 일을 행했습니까? 부자 청년도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으며, 부자 청년은 어찌하여 근심하며 돌아갔습니까? 주님이 행하라 하신 최우선의 과제는 8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즉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순위에 두고 산상설교의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노라면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좁은 문, 좁은 길로 행하는 것이며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